http://dx.doi.org/10.14577/kirua.2021.23.4.80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
- 관련 기록물을 통한 목조건축과 목선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eju Pan-ock
- Focused on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Ship-building through the Record of Jeju Pan-ock -

김 라 니* 한 동 수**
Kim, Ra-Nee Han, Dong-Soo

Abstract

This study is initiated after discovering that Minsu, a man about 600 years ago, mentioned a new architectural type called 'Pan-ock' in a record he left when he was punished for slavery at Jeju. Although there are no additional records or architectural remains, the following two hypotheses were made regarding the existential possibility of Pan-ock. First, Pan-ock was originated from materials obtained from ships. Second, it was related to the Pan-ock-seon. The hypothese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large wooden ships such as trade ships were being actively built, as it was 160 years before Chullyuk Geumjiryeon of king Injo was banned, and the woodworking skills were considerable. Another hypothesis is also established by comparing the records of Pan-ock with other records of the same period and inferring the relationship of related events.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explaining the diversity of our architecture to overcome that most of the architecture have been lost compared to Korea's splendid history. Therefore, a sequent study intends to compare the hypotheses proposed after this study with the architecture in the coastal and island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find and verify the authentic cases of Pan-ock in Korea and East Asia.

주 요 어 : 제주판옥, 제주건축, 동국여지승람, 배목수, 너와집
Keywords : Jeju Pan-ock, Jeju's architecture, Donggukyeojiseungram, Ship carpenter, Neowajib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 판옥(板屋)이라는 새로운 건축유형을 제주 관련 기록물에서 발견한 본 연구자는 이를 학위논문[1]에 언급하며 발표하였지만, 추가적인 기록이나 실증적인 증거물이 없었기에 후속연구는 진행하지 않았다. 비록 한 줄의 문헌 기록만 남아 물증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오랜 역사에 비해 실존하는 건축유적이 매우 적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 건축의 다양한 존재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에 제주 판옥이라는 건축유형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논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제주 판옥이 배로부터 기인했다는 가설과 제주에 남은 원제국인들과의 연관성에 관한 가설논문[2]을 발표하였고, 이후 제주 판옥과 배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추가 논문[3]을 발표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를 보완하고 추가하여 심화시킨 것임을 우선 밝힌다.

이는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인 건축유적이나 그 외의 직접적인 추가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던 탓에 제주 판옥이 등장한 시기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기록들을 종합하여 추정해 본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중 배와의 연관성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의 건축과 배인 목조건축과 목선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 판옥의 실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개괄적인 연구 범위는 제주 판옥이 기록상에 등장하는 시기인 조선전기를 기준으로 하여 동시대의 기록물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역사적인 정황들을 찾아 해석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시작하게 해준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 군현편 제주목의 판옥 관련 기문을 분석하고, 이 기문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문을 작성한 관노 민수와 동국여지승람에 관해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판옥의 위치를 추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yang University, dsharn@hanyang.ac.kr)
본 논문은 2021년 제주학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김라니, 제주 정의현[성읍]의 건축문화유산과 그 진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75-77.
2)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편을 중심으로, 건축역사학회 2019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9, pp.263-266.
3)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문헌기록을 통해 본 목조건축과 목선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2021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1, pp.43-46.

정하여 기록들을 통해 제주 판옥이 배로 기인했다는 가설을 세웠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 한 판옥의 용어를 절대적인 기록의 우위에 있는 조선 시대 수군의 기록을 빌어 정의하고, 판옥과 판옥선의 연관성도 이들 기록을 통해 밝히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 목조건축과 목선의 연관된 기록들을 찾아 그 연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2. 제주 판옥의 배경

2.1 제주 판옥의 기록

동국여지승람(성종 12년, 1481년)의 제주목 제영편에 관노 민수의 제목 미상 기문이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원문_頭目未詳　水國蒹葭雲夢暮.　山城橘柚洞庭秋.石墻板屋民居壁. 異服殊音客子愁.

-역문_제목미상 물나라의 갈대는 운몽의 저녁이요, 산성의 귤과 유자는 동정의 가을이로다. 돌담과 판잣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 다른 옷과 말소리는 나그네의 근심 되나니.

-해석_민수의 7언 절구로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다. 제주의 백성들이 사는 돌담 두른 판잣집을 말했다. 시인은 제주의 갈대와 귤을 가각 중국의 그것과 나란히 짝지어 그 훌륭함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만의 돌담과 특이한 사투리에 조금은 낯선 기분을 느끼며 나그네의 수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운몽(雲夢)은 호수이름인데 호북성(湖北省) 안륙현(安陸縣) 남쪽에 있고, 동정(洞庭)은 동정호(洞庭湖)를 말하는데 귤중에 동정귤(洞庭橘)이 있다.[4]

이는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에서 발행한『동국여지승람 제영 사전 군현편』에 수록된 내용이다.

기문을 쓴 민수는 당시 '민수사옥(閔粹史獄)'을 일으켜 제주 관노로 충속(充屬)되었던 인물로, 신분 추락을 하였음에도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며 서울의 벼슬아치였던 자신이 제주의 사람들 속에서 관노라는 낯선 이로 살아가는 심정을 담아냈다.

여기서 판옥은 그가 당시 살았던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그가 살았던 곳이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을뿐더러 해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담과 판잣집은 백성 사는 곳에 궁벽하고'라 함은 '돌담과 판잣집이 백성이 사는 곳으로 궁벽하다'이거나 '돌담과 판잣집이 있는데 백성들은 궁벽하다' 일 수도 있다.

아니면 판옥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이 다르거나, 기록 자체의 오타일 수도 있어서 또 다른 해석본인 (재)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 재판한『신증동국여지승람 V』를 찾아 교차 검증했지만, 해석에는 차이가 없었다.

아래는 또 다른 그의 기문으로 당시 그가 머물렀던 곳을 추정할 수 있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다. 해석은 앞의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본의 내용이다.

4) 김건곤 외 3인,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 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 2014, p.587.

-원문_頭目未詳 都近川肥潮長夜, 漢拏山瘦葉彫秋

-역문_제목 미상 도근천이 살쪘으니 조수가 긴 밤이요, 한라산이 야위었으니 잎사귀가 시드는 가을이로다.

-해석_민수의 7언 시로, 다른 문헌에는 전하지 않는다. 제주의 하천인 도근천에 대해 말했다. ...(중략)...제주도의 가을 풍경을 읊은 시다. 조수가 밀려 들어와 물이 불어난 도근천의 밤 풍경과 한라산의 야위어가는 듯한 가을을 말하고 있다.

Fig. 1. Dogeuncheon location guide and current photos as of 2019 (Source: https://map.kakao.com)

기문에서 언급된 도근천은 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위치하고, 어승생악 아흔아홉골 인근에서 발원하여 어시천을 합수하고, 다시 광령천에 합수되어 외도포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Fig. 1>.

관노 민수가 조수가 밀려 들어와 물이 불어난 도근천이라 하였으므로 보통 건천인 상태의 제주 하천을 떠올린다면, 그가 말한 도근천은 항상 물이 있는 외도포구 근처일 것이다. 설사 평소에는 건천이었다가 조수가 밀려 들어와 일시적으로 하천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도근천이 살쪘다고 시적 표현을 한 것이라 해도 현재의 외도포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일 것이다.

Fig. 2. Minsu's presumed residence
(Source: https://map.kakao.com)

그렇다면 도근천 오른쪽 인근으로 그의 거주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곳은 또한 관노 민수가 충속되었던 곳인 제주목 관아가 있었던 제주읍성의 관덕정[5]에서 현재 도근교까지 도보거리로 약 9Km 정도가 되는데, 옛길과의 오차가 있어도 반나절을 넘기기 어려운 거리이기에 당시 관노 민수가 일상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거리였을 것이다 <Fig. 2>.

2.2 도근천에 관한 기록과 해석

관노 민수의 추정거주지와 제주 판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근천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는 지난 2000년 발간된 수정사지 유적발굴조사보고서[6]로 관련 사료들이 인용되었다 <Table 1>, <Fig. 3>.

이를 토대로 도근천 인근에 수정사가 있어 '수정천'이라 부르기도 했고, 고려 시대부터 조정으로 보내는 공납물을 실은 배들이 이곳 포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공천'이라고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Historical records of Dogeuncheon

사료명	시대	도근천관련 주요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중종25)	-도그내는 제주서쪽 18리에 위치 -수정내, 조공내라하고 제주사람이 말을 난삽하여 '도근'자는 '조공'자의 잘못이고, 큰내의 하류를 이루어 도근개라 불림
김상헌의 남사록	1601(선조35)	-도그내폭포는 제주서쪽15리에 위치 -수정내, 조공내라라고 하고, 제주사람의 말을 난삽하여 도그내는 조공내의 잘못된 것 -말류는 도그내
이원진의 탐라지	1653(효종4)	-제주 서쪽 20리에 위치 -수정천 또는 도근천이라하는데 조공이 잘못 발음되어 도근이 된 것 -내중 가장 큰하구는 조공포
이형상의 탐라순력도	1702(숙종28)	-한라장촉에 도그내개로 표기
탐라고지도	1709(숙종35)	-도그내개로 표기
해동지도의 제주삼현도	1724-1776 (경종4-영조52)	-도그내개로 표기
제주삼읍도총지도	18세기	-도그내개로 표기
제주군읍지	1899(고종36)	-조공내는 제주 서쪽 20리에 위치 -수정내, 도그내라하고, 제주사람의 말이 난삽하여 조공의 음이 잘못되어 도그내라 함 -말류는 조공개, 독근내

a)Sujeongsa excavation site

b)Dong-yeo-do

Fig. 3. Sujeongsa excavation site & Dong-yeo-do

2.3 제주 판옥의 기록자 : 관노민수

제주 판옥이 신뢰할만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래서 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록이라면, 이것을 기록한 관노 민수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와 그가 기록한 것들이 역사적 사실인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수(閔粹)는 조선전기 인수부승, 예문관 응교, 사간원 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고려 시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종유(宗儒)의 6대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심언(沈言)이고, 아버지는 충원(沖源)이며, 어머니는 오보(吳溥)의 딸이다. 세조 2년(1456년)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했고, 세조 5년(1459년)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로 처음 벼슬길에 올랐으며, 곧 인수부승(仁壽府丞)으로 옮겨졌다. 같은 해 6월 인수부승 재직 중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이영은(李永垠)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한관(閑官)을 제수하여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혜택을 받았다. 그 뒤 세조대를 통하여 사관직(史官職)을 겸대, 세조 10년(1464년) 천문·풍수·율려(律呂)·의학·음양·사학(史學)·시

5) 1448년(세종 30) 목사 신숙청(辛淑晴)이 군사들의 훈련청으로 제주목관아지 건물 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적임.

6) 제주대학교박물관, 외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적발굴조사 수정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도, 2000, pp.39-49.

학(詩學)의 육성을 위하여 각 분야에 6인의 젊은 문신을 배치할 때 최경지(崔敬止) 등과 함께 시학문(詩學門)에 배속되었다. 예종 1년(1469년)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 재직 중 춘추관이 『세조실록』의 편찬을 시작하자 그간에 작성한 사초(史草)를 수납하였다. 이때 그가 작성한 사초에는 실록 편찬을 주관한 대신 등의 득실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초에 이를 기록한 사관의 이름을 명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춘추관 기사관 강치성(康致誠) 등과 몰래 해당 사초를 꺼내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양성지(梁誠之)에 관계된 내용 등에 6사(六事)를 고쳐서 납입 하였다. 곧 이 사초 개정이 탄로나면서 의금부에 수감 되어 사형으로 논죄 되었다. 그러나 예종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서연관(書筵官)이었다는 인연과 독자(獨子)라는 입장이 고려되어 특별히 죽음을 면하고 제주도에 관노(官奴)로 충속(充屬 : 보충, 소속되어 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성종 8년(1477년) 죄에서 풀려서 예문관 봉교에 제수되었고, 그 뒤 예문관 응교와 사간원 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이렇듯 그는 조선 시대의 기록을 담당하던 사관(史官) 출신이었고, '민수사옥(閔粹史獄)'이라는 사건명 또한 그가 사초(史草)를 개서(改書)한 일로 인해 일어나 사건이며, 그가 사면된 후에도 다시 사관으로 복직되었기에, 그는 조선전기 역사적 기록들과 매우 밀접한 관리였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예종실록』, 『국조방목』, 『연려실기술』, 『점필재집』등 신뢰할만한 조선 시대의 사료에 등장하고 있으며, 198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판한 『한국사론』 내용 가운데 차용걸이 쓴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태도와 사관의 역사 인식」에 언급되어 있다. [7)]

따라서 민수사옥이 일어났던 예종 1년(1469년)부터 사면받은 성종 8년(1477년)까지 약 8년간 제주 관노로 충속되어 있던 기간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그가 기문의 형태로 남긴 제주 판옥의 기록 역시 사료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2.4. 제주 판옥의 기록지: 『동국여지승람』

민수가 사면을 받아 다시 사관에 복직되었다고 해도 일개 지방의 관노였던 그의 기문은 어떻게 『동국여지승람』에 실리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성종 12년(1481년) 총 50권으로 편찬된 조선전기의 대표적 관찬 지리서이다. 성종(1469~1494)은 노사신(盧思愼)·양성지(梁誠之)·강희맹(姜希孟) 등에게 명(明)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와 조선에서 제작했던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참고하여 새로운 지리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다. 이 작업의 결과로 완성된 지리서가 바로 『동국여지승람』이다. 처음에 『동국여지승람』은 모두 50권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성종 대와 연산군(1494~1506) 대에 수정 작업을 거쳤다.

그 결과 중종 25년(1530년)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증보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간행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모두 55권 25책이다. 권1~2 경도(京都),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각 지역의 앞부분에 각 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도의 연혁·풍속·묘사(廟社)·능침(陵能)·궁궐·관부(官府)·학교·토산(土産)·효자·열녀·성곽·산천·누정·사사(寺社)·역원(驛院)·교량(橋梁) 등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은 조선전기 지리서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사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지리 연구는 물론 지방 사회의 모습을 연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8)]

이렇듯 『동국여지승람』은 관노 민수가 사면받아 다시 사관으로 복직했던 성종 8년(1477년)보다 약 4년 뒤인 성종 12년(1481년)에 편찬되었다. 따라서 그는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던 시기 조정에 있었으며, 편찬하던 이들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미 사면받은 그이기에 그의 기문도 당시 지리편찬서인 동국여지승람의 전라 제주목의 기록으로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한 비록 한때는 자신들이 부리던 관노였으나 조정으로 복직한 그의 기문을 제주목의 관리들이 누락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광해군과 추사 김정희 등으로 대표되는 '귀양다리'는 제주로 유배된 이들을 부르는 제주어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유학이 제주에 뿌리내리도록 학문적인 업적을 이룬 이들도 있었고, 중앙으로의 진출 등을 꾀하던 제주의 관리들이나 사대부들과 상인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제주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 혼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대 수재이며 임금의 서연관(書筵官)[9)]이였던 민수 역시 비록 관노였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그의 학문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제주 판옥에 관한 기문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2.5. 판옥의 용어 정의

한국건축용어를 정리해 놓은 대표적인 사전이라 할 수 있는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이나 김왕직의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을 찾아보면 판옥이라는 용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판자로 사방을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들고 허술하게 지은 집, 판잣집"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고찰을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전쟁 이후의 판잣집의 일반적인 개념을 정의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볼 필

7) 민수사옥,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1.10.10.,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B%AF%BC%EC%88%98&ridx=2&tot=19

8) 동국여지승람, 국사편찬위원회, 2021.10.10.,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0&levelId=tg_003_0990

9) 왕세자의 교육을 맡았던 세자시강원의 관리들로서,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대개 오랫동안 세자를 가르쳤으므로, 뒤에 그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하였다.

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여러 자료에서 도시 빈민들이 허술하게 지은 집을 보통 토막(土幕)집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역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땅을 파고 위에 거적때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우니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 움집보다 작다.'라고 정의하고, 건축용어사전에도 '움집, 움막'[10]이라고 되어있다 <Fig. 4>.[11]

Fig. 4. Japanese occupation tomagjib
(Source: Gunsan Moderm History Museum)

조선 시대 말에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에는 유독 나무가 없는 벌거숭이산들이 자주 보이고, 실록 등 조선 시대의 여러 기록에서도 '벌목 금지령'이 자주 등장하는 등 나무도 귀하고, 판재도 귀했었다. 따라서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구하기 어려운 나무보다는 땅을 파고 풀을 이용한 움막집, 즉 토막집을 짓기가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에는 군부대의 잉여자재, 부서지고 무너진 건축물의 잔해 속에 폐자재가 된 널이 충분했을 것이고 이것들을 이용해 판잣집을 짓는 것 또한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시대의 기록을 보면 판옥이라는 용어는 흔히 군선에서 사용된다. 거북선의 시초로 알려진 '판옥선(板屋船)'은 '널빤지로 지붕을 덮은 전투선'으로 이때 판옥은 지붕을 올린다는 의미로 쓰였다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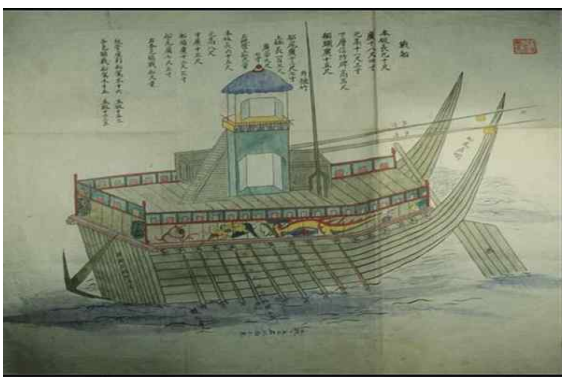


Fig. 5. Pan-ock-seon (Source : http://encykorea.aks.ac.kr/)

이를 건축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판자 즉, 널을 이용하여 지은 집이거나 혹은 널로 지붕을 올린 집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노 민수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것임만큼 조선 시대의 판옥선의 개념을 빌려 판옥을 정의하고자 한다.

2.6. 소결

제주도에서 판옥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는 관노 민수의 기록이 유일하며, 남아 있는 건축유적도 없다. 중종 25년(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목편 풍속에서는 '초가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등 오직 초가와 와가에 대한 기록과 건축유적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탐라순력도』와 같은 그림 형태의 사료와 그 외의 기록들에서도 제주 판옥으로 추정되는 건축유형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 시대의 널은 많은 품이 들어가는 고급 건축자재로, 얇은 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켤톱과 같은 좋은 연장도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관노가 거주하는 곳에 사용했다 단정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당시는 일반 백성은 '테우'와 같은 뗏목만을 운영하고 부역과 진상품을 실어나른 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배도 만들 수 없었던 출력금지령[12]이 있기 160년 전이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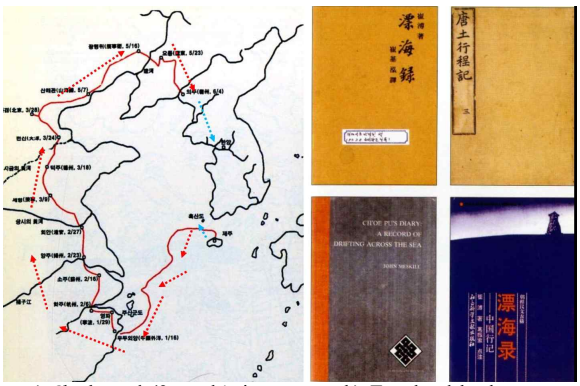
3. 제주 판옥의 실존 가능성에 관한 가설

3.1. 배로부터 기인한다는 가설

관노 민수의 추정거주지가 외도포구와 합수되는 도근천 인근인 것에서 착안하여, 판옥의 널이 폐목선이나 혹은 목선을 만들다가 남은 재료를 이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첫 번째 가설을 세워보고자 한다.

1488년(성종 19년) 최부의 표류기[13]에 따르면 수정사 승려 지자의 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도근천 서쪽에 있었던 수정사 소유의 배로 관선보다 견고하고 빠르다고 하였다. 이는 관노 민수의 추정거주지인 도근천 인근의 배에 대한 직접적 기록이다 <Fig. 6>.[14]

10)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서울, 2014, p.21.
11) 문정곤기자, 일제강점기 군산조선인의 '달동네삶' 흔적찾기, 전북일보, 전라북도, 기사게재일:2019/07/24, http://www.jjan.kr
12) 과도한 부역과 진상으로 피폐해지고 굶주린 제주도민들이 섬을 떠나면서 인구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역과 진상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도민을 섬 밖을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강경책을 내놨다. 인조 7년(1629)에서 순조 25년(1825)까지 약 200년 동안 부역과 진상품을 실어나르는 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배 또한 만들 수 없었기에 어선 또한 '테우' 같은 땟목만을 사용할 밖에 없어 해안을 벗어나는 고기잡이는 할 수 없는 등 어업과 항해술, 배를 만드는 기술 등도 쇠퇴하였다. 이로 인해 목조술 또한 쇠퇴한 것이다.
13) 1487년(성종 18년) 9월 제주추쇄경차관으로 제주에 갔다가 부친상으로 선원들의 만류에도 좋지 않은 날씨에 서둘러 귀향하다 서해를 통해 중국으로 약 6개월간 표류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일을 성종의 명을 받아 『중조문견일기』 3권으로 기록하였지만, 1506년(연산군 12년) 갑자사회때 처형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신원이 복귀되었고, 외손자에 의해 『표해록』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각국으로 번역되어 출판되는데, 이 시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사료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14) 최부, 표해록, ㈜도서출판 한길사, 서울, 2004, p.43, p.7.



a) Choebu and 43 people's journey b) Translated book cover

Fig. 6. Choebu and 43 people's journey & Translated book cover

탐라순력도에 나오는 제주배에 대한 그림과 복원된 덕판배, 그리고 그 배가 해체된 모습을 통해 제주배에 대한 규모와 기술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판옥(板屋)을 만들기 위한 기술과 재료로 확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포구 인근이라는 장소는 판옥과 배의 연관성을 더 굳건하게 해준다. <Fig. 7>[15][16].

또 한 도근천이 한라산 인근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배를 만들기 위한 거목을 한라산 인근에서 벌목하여 도근천을 이용해 배를 만드는 곳까지 운반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를 만들면서 나오는 '널'이나 폐목선에서 나오는 폐자재 '널'이 충분히 판옥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 Tamlasunlyeogdo no.41 Hoyeongeumseo c) Restored Jeju Deokpanbae

b) Tamlasunlyeogdo no.09 Udojeomma d) Dismantled Jeju Deokpanbae

Fig. 7. Tamlasunlyeogdo's Jeju ship & Deokpanbae

그 형태는 세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초가나 와가의 구조와 비슷하면서 단지 지붕 재료만 널을 이용하는 지붕형 판옥이고, 다른 하나는 벽체는 널을 이용하고 지붕은 초가와 같은 것이며, 마지막은 벽과 지붕이 전부 널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두 경우 반드시 '널'이 아니거나 통나무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다.

15) 이형상,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시청, 제주도, 2004, p.101, p.37.
16) 덕판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사전, 2021.10.10.,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Index

판옥의 용도는 살림집이나 혹은 창고, 작업장일 수도 있으며, 이는 관노 민수가 '백성이 기거한다'는 의미를 살림집의 용도 외로 확장 시켰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판옥은 제주만의 건축유형이 아니라 도서 해안지방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3.2. 판옥선(板屋船)과 연관되었다는 가설

판옥선은 1555년(명종 10년) 새로운 군함으로 건조되었고, 이에 비해 제주 판옥(板屋)은 무려 74년 전인 1481년(성종 12년)에 기록이 되어있다 <Fig.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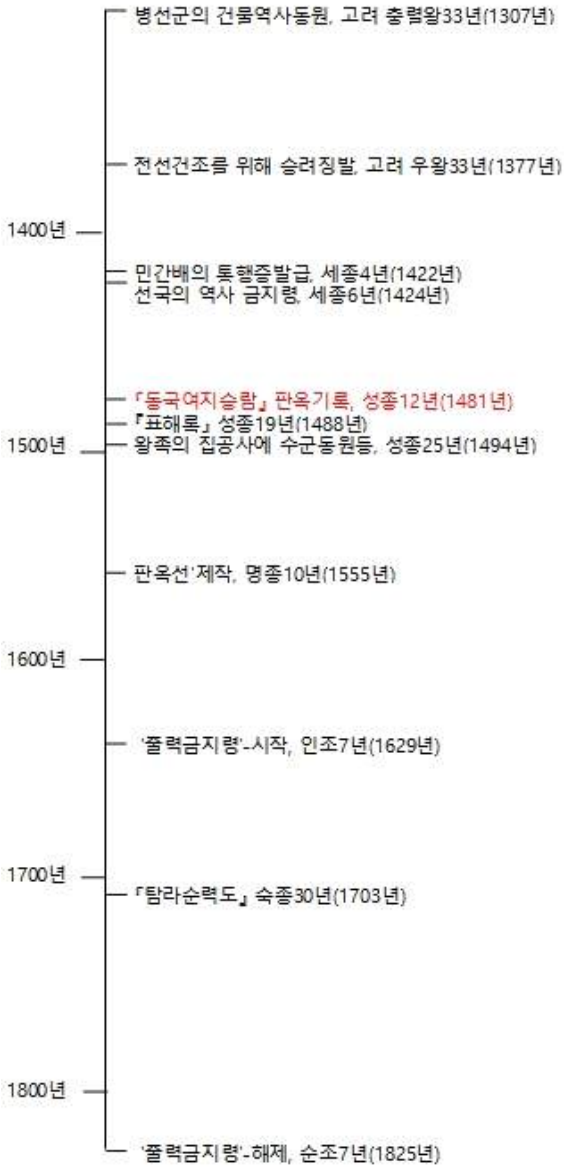


Fig. 8. Chronology based on the Jeju Pan-ock Records

다음은 판옥선에 관하여 정리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용이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중 크게 활약하였으며 뒤에 전선(戰船)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전투함으로 일명 판옥 전선이라고도 한다. …(중략)…중종과 명종 대의 삼포왜란(三浦倭亂)·사량왜변(蛇梁倭變)·을묘왜변 때에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전투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기운이 팽배하였다. 이런 가운데 1555년(명종 10)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군함이 시험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판옥선이다. (생략). 왜구의 잦은 출몰의 피해로 인해 조선 정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군선의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17)]

그 결과 명종 대에 이르러 드디어 판옥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해안가에 있던 판옥이 배를 만드는 이들에게 ‘집처럼 널로 지붕을 올려보자’라는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 한 배와 관련된 건축시설물로 판옥이 쓰였다면 더 쉽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관선이나 전투선 외에 민간에서도 상당한 양의 배를 만들어 사용했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 되었다. 1422년(세종 4년)에는 조정에서 개인의 배에 통행증을 발급하여 이런 문제를 줄이자는 논의가 있었고 제도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Fig. 8>.

그만큼 조선소가 많았을 것이고, 배 목수들 또한 그 수가 상당했을 것이다.

3.3. 소결

여러 기록과 정황 등을 근거로 판옥이 실존했었고, 배와 관련이 있으며, 판옥선과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해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판옥은 제주만의 건축유형이 아니라 도서 해안지방에 널리 퍼진 일반적인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다.

4. 목조건축과 목선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기록들

4.1. 배목수가 건축(建築)에 동원된 기록들

제주 판옥의 기록보다 앞서는 1307년(충렬왕 33년)『고려사』세가(世家)에 병선군(兵船軍)을 건물역사에 동원한 기록과 선군(船軍)을 창고 건축에 투입한 기록[18)]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 <Fig. 8>.

“6월 …병오일에 전왕이 좌승지 김지겸(金之兼)을 보내 왕에게 건의하기를 ”조성도감관 환이 (桓頤)로 하여금 병선군을 영솔하고 내영윤 강순(康順), 호군 이주(李珠)와 더불어 역사를 감독하여 시가지의 양쪽에 장랑(長廊) 2백칸을 짓게합시다“라고 하였으므로 왕이 그 의견에 좇았다 . 卷第二十二, 忠烈王世家. 三十三年… 六月… 丙午, 前王, 遣左承?金之兼, 來啓, 令造成都監官桓頤, 領兵船軍, 與內盈尹康順·護軍李珠, 董役, 營造市街 兩旁夭廊二百閒, 從之.

11월… 신미일… 이 날 왕이 비답한 이후 판검교의 사무가 더욱 번잡하게 되었다. 또 전농사에 분부를 내리기를… 5) 동적창(東積倉)과 서적창(西積倉)을 선군과 기인(其人) 각각 1백 명과 제색장인들을 사용하여 적당히 건설할 것 . 卷第三十三, 忠宣王世家. 卽位年… 十一月… 辛未… 是日, 下批, 判檢校之職, 益繁矣. 又下旨于典農司…… 東西積倉, 用船軍·其人, 各一百名, 及諸色匠”

또한『조선왕조실록』에서는 1424년(세종 6년) 선군(船軍)에게 국가 대사 이외에 역사를 시키지 말게 하자는 상소가 올라왔고 이를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으며,(장학근·이민웅,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Ⅰ, 신서원, 1997, p.294.-p.295) 1494년(성종 25년)에는 당령수군이 역사하는 노고를 감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당령수군(當領水軍)을 여러 군(君)의 집을 영조하는데 역사시키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Fig. 8>.

이는 수군을 동원해 왕족들의 집을 건축했다는 것을 뜻하며 ’완원군‘이나 ’공신옹주‘등의 구체적으로 이름도 나온다. 당시 수군을 동원하는 것이 빈번한 탓인지 같은 시기에 각처 역사에 당령선군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난이 또다시 등장하기도 한다.[19)] <Fig. 8>.

이 시기는 특히 제주 판옥이 기록된 1481년(성종 12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조선 시대 각종 궁궐 건축과 관련된『의궤』에서는 배를 만들던 목수인 ’선장(船匠)‘혹은 ’조선장(造船匠)‘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로 배를 만들지만, 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건축공사에서 용마루나 추녀처럼 길고 휘어진 부재를 다듬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20)]

4.2. 승려들을 배 건조(建造)에 참여시킨 기록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기록이 1377년(우왕 3년)『고려사』세가(世家)에 있는데, 전선의 건조를 위해 각 도의 중들을 모집하였다는 대목(임원빈·김주식·이민웅·정진술,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서울, 2004, p.445)으로 다음과 같다 <Fig. 8>.

”우왕 3년…3월에 전투에 직접 쓸 배를 만들기 위하여 중들을 경산(京山) 및 각 도에서 모집하였는데 양광도에서 1천명, 교주도·서해도·평양도 에서 5백명, 경산(京山)에서 3백명이었다 . 우왕이 명령하기를 ’중들 가운데서 만약 구차히 피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군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 그리고 각 도에 통첩하여 전투에 직접 쓸 배를 만드는 목수 1백 명의 식량은 그들의 처자들에게도 주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卷第八十一, 兵志 1, 兵制, 五軍. 辛禑三年…三月, 徵造銃戰船僧從於京山及各道, 楊廣道一千人, 交州·西海·平襄道, 名各百人, 京山三百人, 令曰, 僧慫如 有苟避者, 輒以軍法論, 移牒諸道, 其船匠一百人饒凜, 及其妻孥.“

즉 배 건조에 승려들을 동원한 것으로 앞서 2장과 3장에서

17) 장학근·이민웅,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Ⅰ, 신서원, 서울, 1997, p.271.

18) 임원빈 외 3인,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서울, 2004, p.257.

19) 김주식,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Ⅱ, 신서원, 서울, 2000, pp.424-426.

20)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조선시대의궤용어사전Ⅰ-왕실전례편, 경인문화사, 서울, 2012, p.236.

언급한 도근천 인근의 수정사와 수정사 소유의 배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비록 해당 기록에서 제주지역이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 시대 궁궐 건축에 승려들을 대거 투입하였듯이 고려말 전함의 건조에 승려들이 동원된 것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5. 결론

관노 민수의 한 줄 기록에서부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비록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인 건축유적이나 그 외의 직접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기록을 대조하고, 관련 사건 간의 연계성을 유추하여 세운 가설들이기에 본 연구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들이나 기록들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한 줄의 문헌 기록만 남아 있어 물증도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판옥이라는 건축유형의 출현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되며, 기억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 600년 전 사람인 관노 민수 그리고 사관 민수가 기록한 한 줄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역사에 비해 대다수가 소실되어 남은 건축유적이 매우 적은 우리 현실에서 본 연구는 우리 건축의 다양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러 기록과 정황 등을 근거로 판옥이 실존했고, 배와 관련이 있으며, 판옥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배목수들이 건축(建築)에 동원되거나 승려들 또한 배의 건조(建造)에 동원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건축과 배의 건조에 능한 목수 집단이 상당히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조선 시대의 의궤 기록에 의하면 배를 만들던 목수인 선장들은 추녀나 용마루와 같이 길고 휘어진 부재를 다듬는 일에 동원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의 목조건축과 목선이 구조적 유사점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판옥이 제주지역에만 극한된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예정이며, 울릉도의 너와집 등 한반도의 도서지방과 해안지역 건축과 이를 연관 지어 확대 연구해 나가고, 아울러 배의 목구조와 건축의 목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판옥의 실증에 대하여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건곤 외 3인,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 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2014.
2. 김라니, 제주 정의현[성읍]의 건축문화유산과 그 진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연구-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제영편을 중심으로, 건축역사학회 2019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9.
4. 김라니, 한동수, 제주 판옥(板屋)에 관한 문헌기록을 통해 본 목조건축과 목선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학회 2021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
5.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서울, 2007.
6. 김주식,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Ⅱ, 신서원, 서울, 2000.
7.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조선시대의궤용어사전Ⅰ-왕실전례편, 경인문화사, 서울, 2012.
8. 이형상, 탐라순력도 영인본, 제주시청, 제주도, 2004.
9. 임원빈 외 3인,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서울, 2004.
10.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서울, 2014.
11. 장학근, 이민웅, 조선시대 수군-실록발췌수군관련 사료집 Ⅰ, 신서원, 서울, 1997.
12. (재)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V, (재)민족문화추진회, 서울, 1971.
13. 제주대학교박물관, 외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유적발굴조사 수정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도, 2000.
14. 최부 저, 표해록, ㈜도서출판 한길사, 서울, 2004.
15. 국사편찬위원회, http://contents.history.go.kr
1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https://museum.gunsan.go.kr
17. 전북일보, http://www.jjan.kr
18.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20. 향토문화대사전, http://www.grandculture.net

접 수 일 자 : 2021. 10. 10
초 심 완 료 일 자 : 2021. 11. 15
재심(1차)완료일자 : 2021. 11. 20
게 재 확 정 일 자 : 2021. 11. 23